



2면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 추억 나눔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음 9월 13일) 제33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 협력·지원 약속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풍 - 무주

정책 대화 통해 무주다움 활성화 아이디어 공유
황인홍 군수 "무주 방문의 해, 힘 모아야 가능"
김관영 도지사 "1000만 관광객 찾는 무주 위해 전북도에서도 귀 기울여 듣고 반영 노력할 것"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정책 보물 창고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장수군, 김제시, 울해 부안군에 이어 26일 무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자연특별시 무주, 2024 무주 방문의 해!'를 주제로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면)

'정책소풍(Saw-風)'은 지난해 9월 특별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에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도지사가 시군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Saw), 도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즐겁게(so fun) 새 변화의 바람(風)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갖고 추진 중이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윤정훈 도의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제와

관련된 무주군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에 마련된 상상 놀이터, 판매장, 목재체험장 등을 꼼꼼히 살펴 보고, '무주 방문의 해' 블록 퍼즐 퍼포먼스와 함께 질의답변 등 정책소풍의 핵심인 '아이디어 보물창고'가 펼쳐졌다. 이날 정책 대화를 통해 참석자들은 무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 개최 지원방안, 무주산골영화제 지원방안, 무주 위케어전 중심지 육성방안, 리조트 활성화 방안 등 무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다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2024 무주 방문의 해의 성공은 무주군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

탁드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무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청정자연"이라며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를 비롯해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올린 반디랜드와 태권도원까지 다채롭고 아름다운 무주군의 자원은 전북 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역시 올 4월에 K-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을 선포하고 힐링과 위케어전에 관심을 두는 등 관광에 진심"이라고 밝힌 김 지사는 "2024 방문의 해도 무주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무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도에서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현재 2024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한 상태로, 관광도시 브랜드 정립과 강화(홍보·마케팅), 이벤트 및 콘텐츠 강화, 관광수용태세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주력해 내년 한 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달성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고, 도지사와 도민 간 정책 소통채널로서 '정책소풍'을 시군과 함께 개최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기자·무주=전문선기자

도교육청, 초등 학생평가 개선 방안 모색 나서

교원·학부모 대상 인식도 설문... 50% 이상 "개선 필요" 응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초등 학생평가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다각도의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23일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학생평가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원 807명, 학부모 2,457명 등 총 3,264명이 참여, 현황

과정중심평가 개선 여부와 개선 영역, 평가 시행 학년·횟수·방법 등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교원과 학부모 모두 50% 이상이 현재 시행 중인 평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가장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는 '평가 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설문조사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11월중 교육현장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초등 학생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나아가 학습부진을 적기에 발견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학력신장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초등 학생평가 개선은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학습부진을 적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제2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26일 전주 월드컬럼비아장에서 열린 제2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식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 세계의 발효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주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발굴해야'

'왕의 공원 프로젝트' 2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

'추진력 담보 위해 하나의 주제 관통하는 사업트리 설정 중요'



26일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열린 왕의 공원 프로젝트 2차 전문가 포럼.

전주시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방문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전주다움이 살아있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기형 전 유네스코 이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26일 전주시에너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왕의 공원 프로젝트 2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확정된 31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2번째 시간으로, '정부 정책과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연계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역을 수행한 이주열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 공정책연구소장의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공간적 배경과 컨셉트 추진

전략 계획과제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금기형 전 사무총장과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성화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홍 프레시안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먼저 금 전 사무총장은 "프로젝트의 3가지 도시 공간의 세부 콘텐츠와 발전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주요 거점에 대한 이용·방문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으로 구조화된 통계수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명칭과 왕의 공원의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추진력 담보를 위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사업을 설정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 사업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화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선공약 등의 수준에서 접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공·금·정원에 관해 각각의 여건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예산확보 등을 진행해 이를 왕의공원 프로젝트에서 품는 구조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기홍 프레시안 기사는 "특히 시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비전을 포명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전주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시는 이날 포럼에 이어 오는 11월 3일 '왕의공원과 전주의 미래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차례 더 릴레이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단풍명소 내장산

빨강, 주황, 노랑...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단풍잎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랑하는 이와 울긋불긋 단풍 바라보며 내장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이 가을날...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내장산 단풍터널

정읍시 JEONGEUP-SI

#내장산 우화정